

밀양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실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1. 조사의 배경 및 취지

인권과 건강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현장에는 건강상의 피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 폭력, 차별, 배제 등은 일정한 건강상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은 인권 침해의 한 지표가 된다.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다소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인권 침해 수준을 구체적 건강 수준 평가를 진행하면 그것을 추상적으로나마 계량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갈등 상황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에 그간의 인권 침해로 인해 밀양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피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그간의 갈등과 인권 침해로 정신 건강 수준의 저하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심리적 외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증상을 나타내는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울, 불안, 공포 증상을 나타내는 이들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였다.

더불어 그간의 갈등과 인권 침해가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2. 조사 방법

2013년 6월 9일(일) 4개 마을(단장면 동화전마을, 산외면 보라마울, 상동면 여수마을, 부북면 평밭마을)에서 일반 진료 및 건강 상담을 실시하였다. 이 때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등의 정신증상을 측정하는 간이정신심리검사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건충격척도 검사를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시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독해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문항을 읽어주고 답하게 하였다. 더불어 신체적 건강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 상담과 문진을 실시하였다. 상담 및 조사에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 9인(정신과 의사 1인 포함),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소속 치과의사 1인, 새물약사회 및 농민약국 소속 약사 3인 그리고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활동가 3인, 젊은보건의료인의 공간 다리 소속 학생 3인 등이 함께 했다.

4개 마을 300여명의 주민 중 81명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중 2명은 마을 주민이 아니어서 제외하고 나머지 79명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체 주민 중 25% 내외의 주민에 대

한 설문 결과이므로 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일정한 주의가 필요하다.

3. 조사 결과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79명의 주민들이 조사 분석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이 중 23명(29.1%)는 남성이고 56명(70.9%)는 여성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70.4세였고, 가장 젊은 조사대상자는 43세, 가장 나이 든 조사대상자는 87세였다. 산외면 주민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장면, 상동면은 각각 21명, 부북면 주민은 12명이 조사에 응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응답자수	백분율(%)
성별		
남성	23	29.1
여성	56	70.9
마을		
단장면	21	26.6
산외면	25	31.7
상동면	21	26.6
부북면	12	15.2
※ 평균 연령 : 70.4 ± 9.3세 (최소 : 43세, 최대 : 87세)		

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조사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사를 막느라 힘들다’, “정부와 한전은 우리를 무시하였다”, “지금도 재산상 피해가 있고 앞으로도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것이다”, “송전탑이 우리 마을로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다”, “조상들이 살던 땅, 고향을 못지킬 것 같아 안타깝다”는 문항에 대한 공감 인식이 대체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조사대상자들은 장기간 길어지는 송전탑 건설 공사 저지 과정에서 극도로 심신이 피로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을 지속하는 것은 정부와 한전이 자신들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송전탑 건설 부지 선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고, 고향의 땅

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크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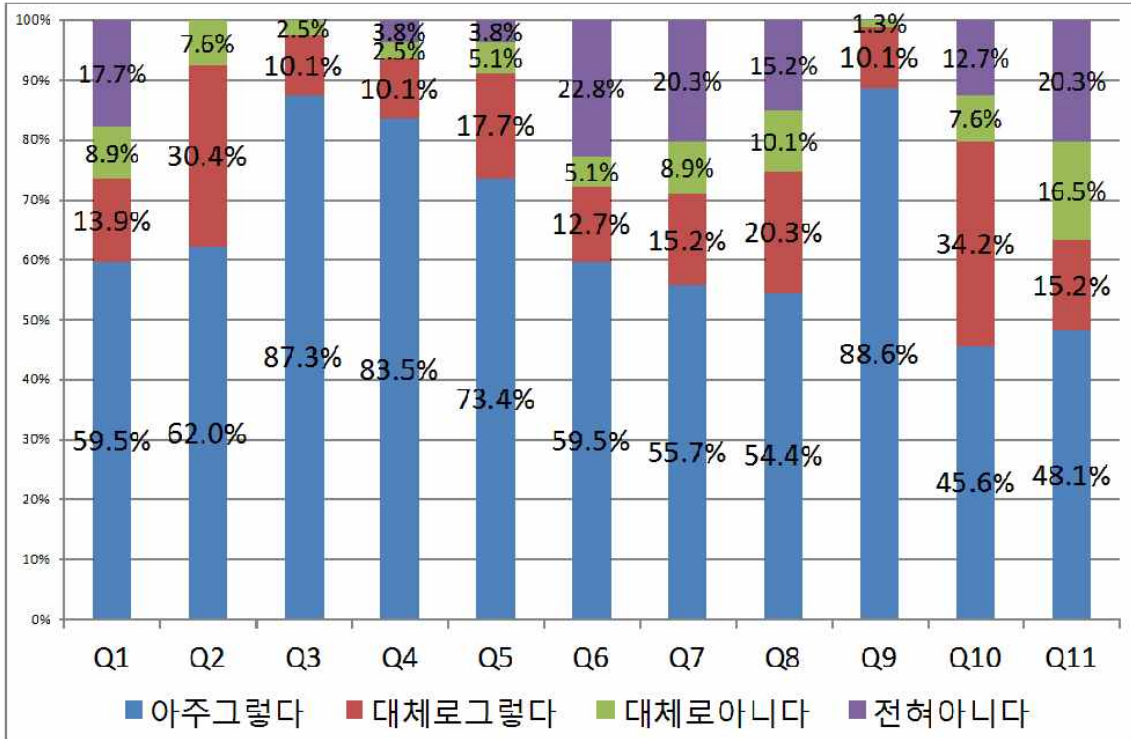


그림 1 송전탑 건설 및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

Q1)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정부와 한전이 우리에게 아무런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다
Q2) 송전탑이 우리 마을로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다
Q3) 정부와 한전은 우리를 무시하였다
Q4) 지금도 재산상 피해가 있고 앞으로도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것이다
Q5) 조상들이 살던 땅, 고향을 못지킬 것 같아 안타깝다
Q6) 송전탑 건설에 찬성하는 마을 주민들에 대해 불만이다
Q7) 이웃들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게 안타깝다
Q8) 결국 송전탑이 세워지는 게 아닌지 불안하다
Q9) 공사를 막느라 힘들다
Q10) 낮은 사람들이 두렵다
Q11) 경찰 등 공권력이 두렵다

다. 학대 및 폭력 경험에 대한 조사

송전탑 건설 저지 과정에서 한전, 시공사, 용역 직원 등에게 유무형의 학대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의 59.5%가 한전, 시공사, 용역 직원 등이 “위

협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취하여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44.3%는 한전, 시공사, 용역 직원 등이 “모욕적인 말, 욕설 등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34.2%가 각종 고소, 고발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15.2%가 “뺨을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주먹으로 맞았다”고 응답했고, “칼(가위) 등의 흉기로 위협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도 15.2%나 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볼 때, 건설 공사를 막기 위한 행동이 벌어질 때에는 한전, 시공사, 용역 직원들에 의한 각종 학대와 폭력이 적지 않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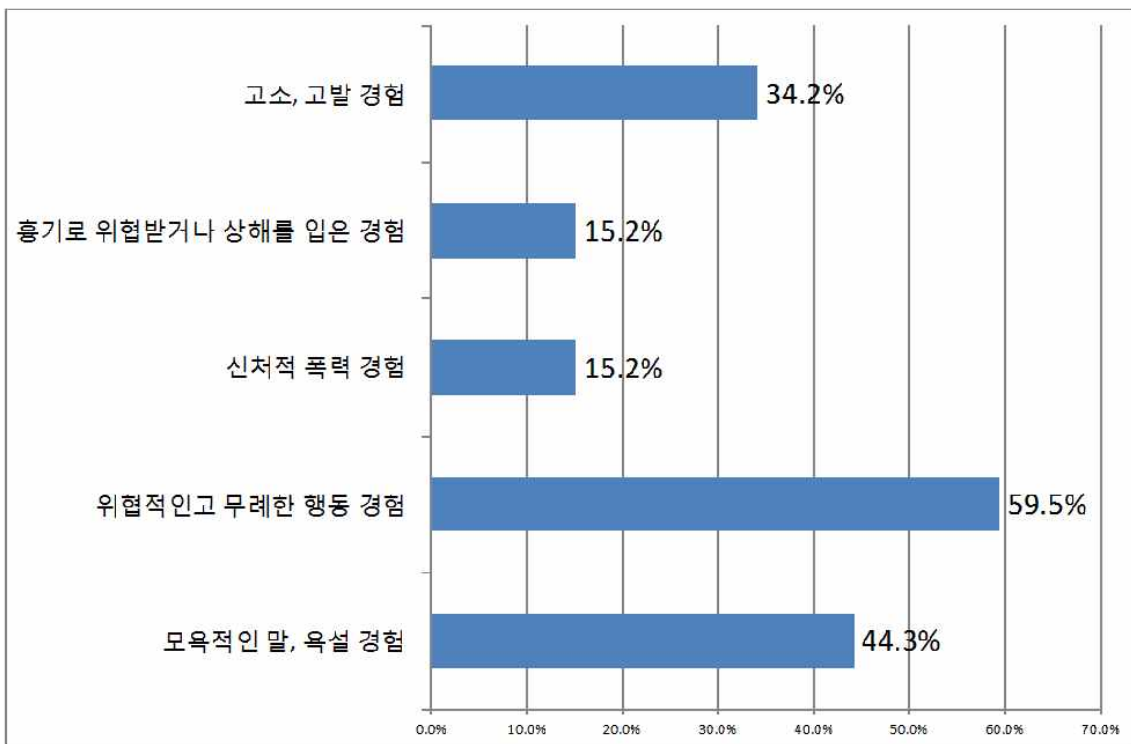


그림 2 학대 및 폭력 경험

라. 정신 증상 조사 결과

간이정신진단검사를 활용하여 우울, 불안, 공포 증상을 조사하였을 때, 일반인 평균보다 높은 우울 증상을 보인 이들은 40.5%, 일반인 평균보다 높은 불안 증상을 보인 이들은 48.1%, 일반인 평균보다 높은 공포 증상을 보인 이들은 41.8%였다. 이들 중 특히 그 증상이 심하여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이들은 우울 증상이 17.7%, 불안 증상이 30.4%, 공포 증상이 29.1%였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우울 증상 유병률이 28.8%~30.9%이고 매우 심각한 증상을 보인 이들이 13.8%~18.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평균적 노인 인구에 비해 1.4~1.5배 정도 더 우울증 고위험군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정신 증상 측면에서 볼 때 조사 대상자들 중 우울감보다는 불안, 공포 등의 감정 상태 이상

을 나타내는 이들이 더 많았다. 이는 과국적인 현실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며 강한 신념체계로 자기 무장을 견고히 하고 있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주민들은 현재 송전탑 건설 저지 투쟁 과정 중에 있기에 강한 신념체계로 자기 무장하여 닥쳐올 수도 있는 부정적 상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현실적 상황이 본인의 기대 및 자기 확신과 어긋날 경우 급격히 과국적인 감정 상태로 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표 3 우울, 불안, 공포 증상 유병률

구분	대상자(명)	백분율(%)
우울 증상		
정상	28	35.4
경미한 우울 증상	19	24.1
심한 우울 증상	18	22.8
매우 심한 우울 증상	14	17.7
불안 증상		
정상	22	27.9
경미한 불안 증상	19	24.1
심한 불안 증상	14	17.7
매우 심한 불안 증상	24	30.4
공포 증상		
정상	31	39.2
경미한 공포 증상	15	19.0
심한 공포 증상	10	12.7
매우 심한 공포 증상	23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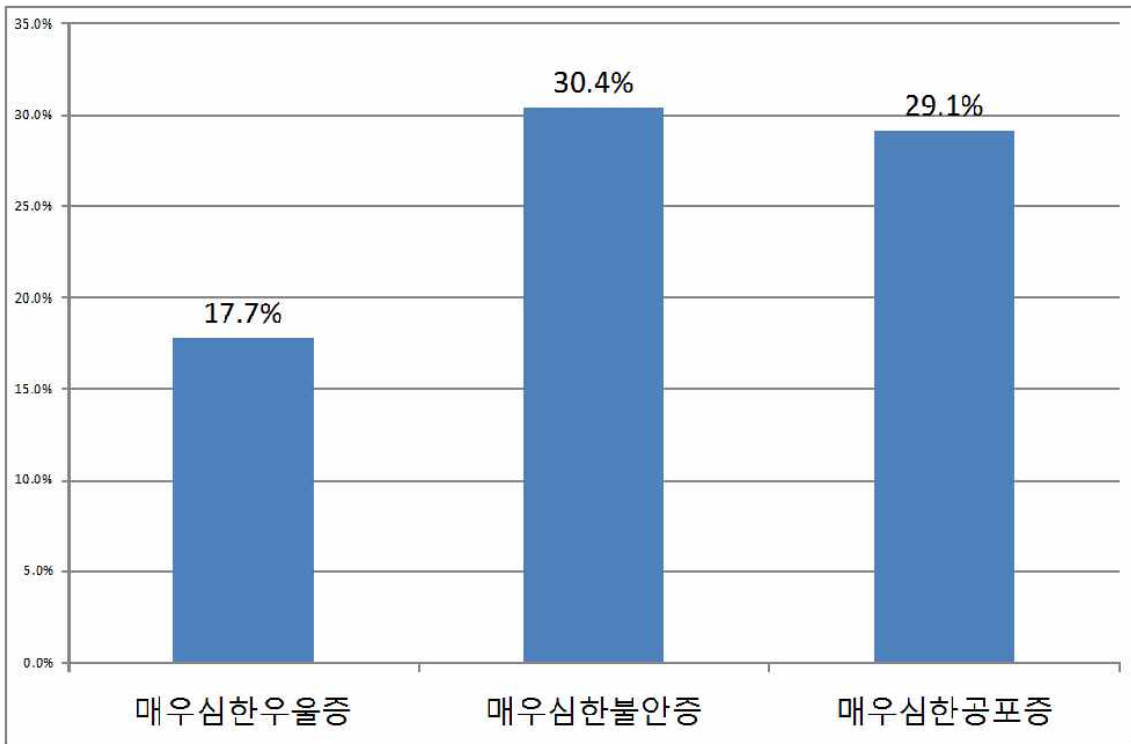


그림 3 매우 심한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증상 유병률

그 중 특히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된다”는 문항에 ‘꽤 심하다’ 혹은 ‘아주 심하다’라고 응답한 이들이 비율이 65.9%에 달했고,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는 문항에는 55.7%가 ‘꽤 심하다’ 혹은 ‘아주 심하다’라고 응답했다. “매사에 걱정이 많다”, “매사가 힘들다”에 ‘꽤 심하다’ 혹은 ‘아주 심하다’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도 각각 54.5%, 49.4%에 달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문항에 ‘꽤 심하다’ 혹은 ‘아주 심하다’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도 31.7%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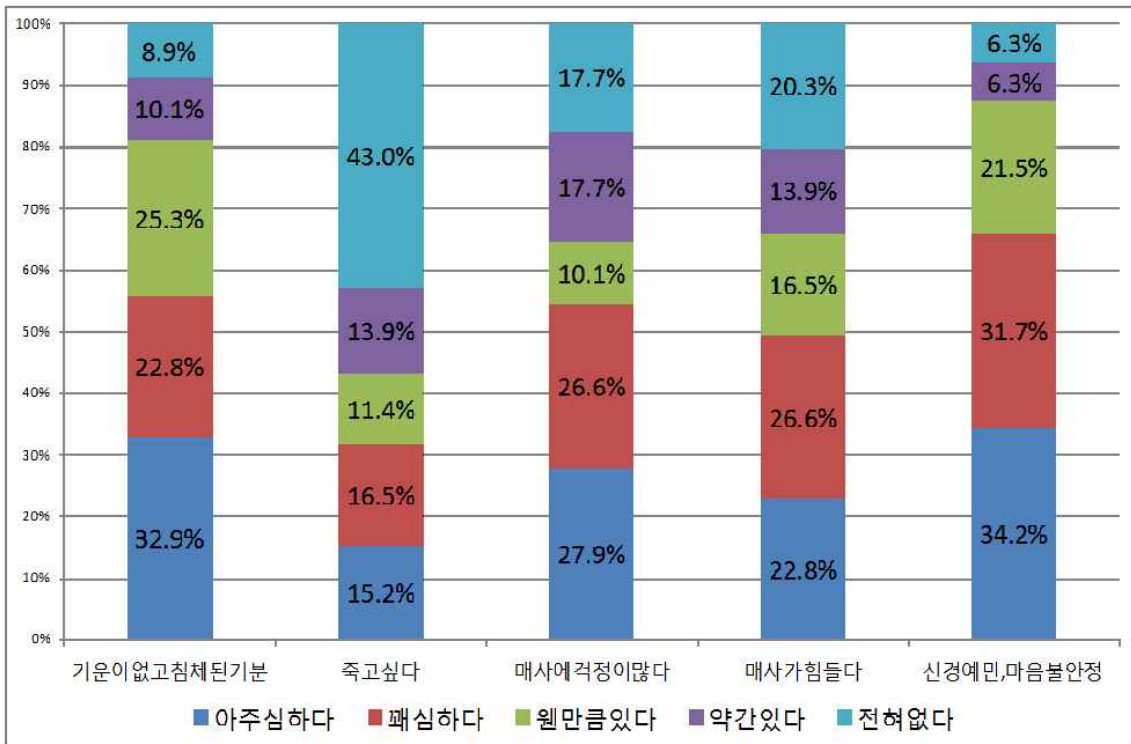


그림 4 특징적인 심리증상들

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유병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주민들의 정신건강 피해 상태를 잘 드러내는 정신 진단 영역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판단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전쟁, 자연재해, 폭행, 강간, 심한 사고 등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이후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하는 증후군으로 갑자기 불안이 엄습하여 공황상태에 빠지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다. 일반인에서 유병률은 1~3%정도이고 진단받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은 5~15%에 이르며, 어느 연령층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나 청년기에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조사대상자들을 사건충격척도로 평가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유병률을 측정하여 보았는데, 그 결과 고위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는 이들의 비율이 69.6%에 달했다. 이 중 매우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는 이들은 35.4%에 달하였다. 이는 일반 인구에 비해 4-5배, 전쟁 및 내전을 겪은 이들에 비해서도 더 높은 수치이다. 9.11 사태를 겪은 미국 시민들에 비해 2.4배, 걸프전에 참전한 미군에 맞먹는 증상 유병률이다.

이는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겪고 있는 갈등이 사고, 전쟁, 해고 등의 심리적 외상과 비슷한 정신심리적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충격의 강도가 매우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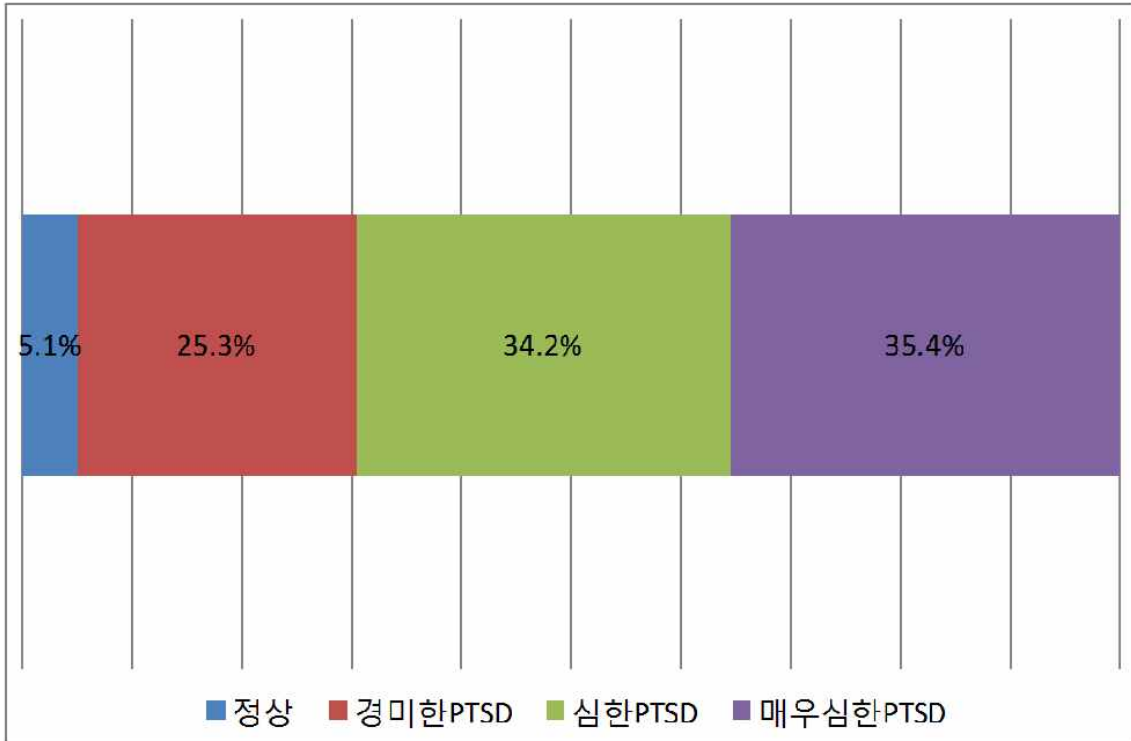


그림 5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 유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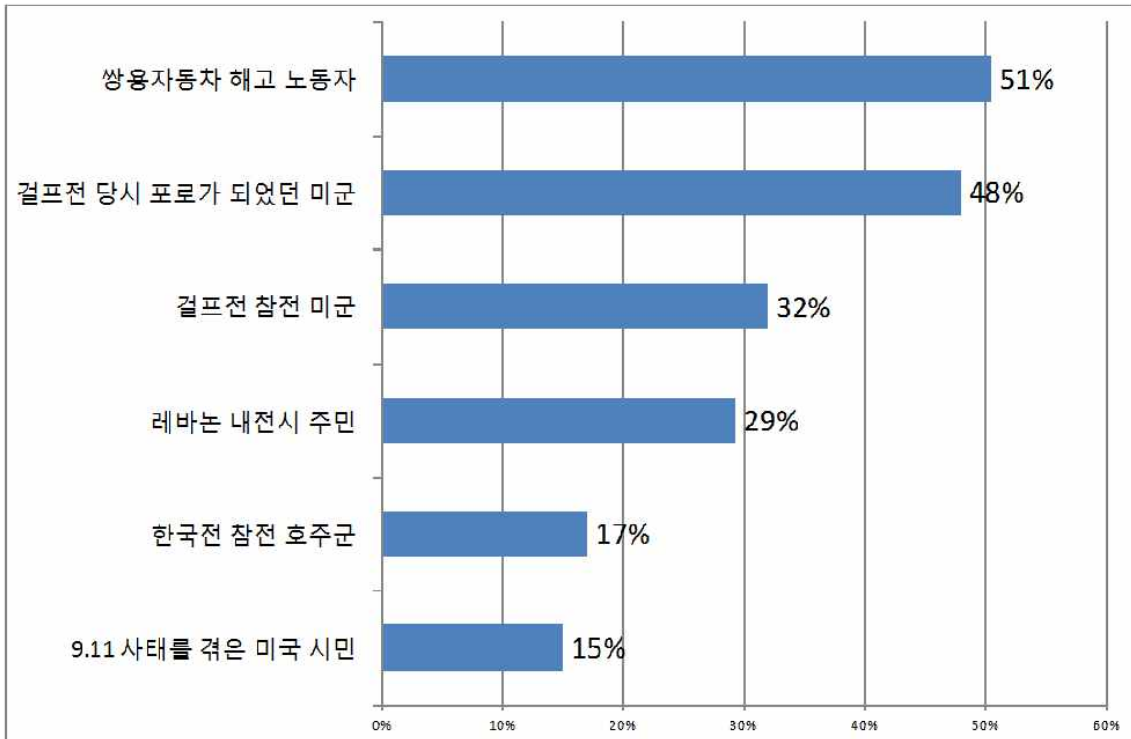


그림 6 전쟁, 해고 등의 상황을 겪은 이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 비교
 ※ 각 조사에서 활용한 평가방식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함.

사건충격척도 검사상 심하거나 매우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나타내는 이들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 비율에 차이를 보이는 요인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건설 과정에서의 한전의 행태에 대한 배신감과 자괴감,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 찬성 주민에 대한 불만, 결국 송전탑에 세워질 것에 대한 불안, 공사 저지 과정의 힘듦, 낮은 이들에 대한 공포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들은 고향땅을 잃을 것 같은 안타까움, 마을공동체 파괴 두 항목이었다.

“조상들이 살던 땅, 고향을 못지킬 것 같아 안타깝다”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이들은 ‘아니다’라고 응답한 이들에 비해 1.2배 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웃들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게 안타깝다”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이들도 ‘아니다’라고 응답한 이들에 비해 1.3배 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한전, 시공사, 용역 직원이 “위험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취하여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한 적이 있다”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이들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이들에 비해 1.5배 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시 말해 고향 및 살던 땅을 잃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마을 공동체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 한전 직원, 시공사, 용역 등에게 당한 위협적이거나 무례한 행동 등이 정신심리적 외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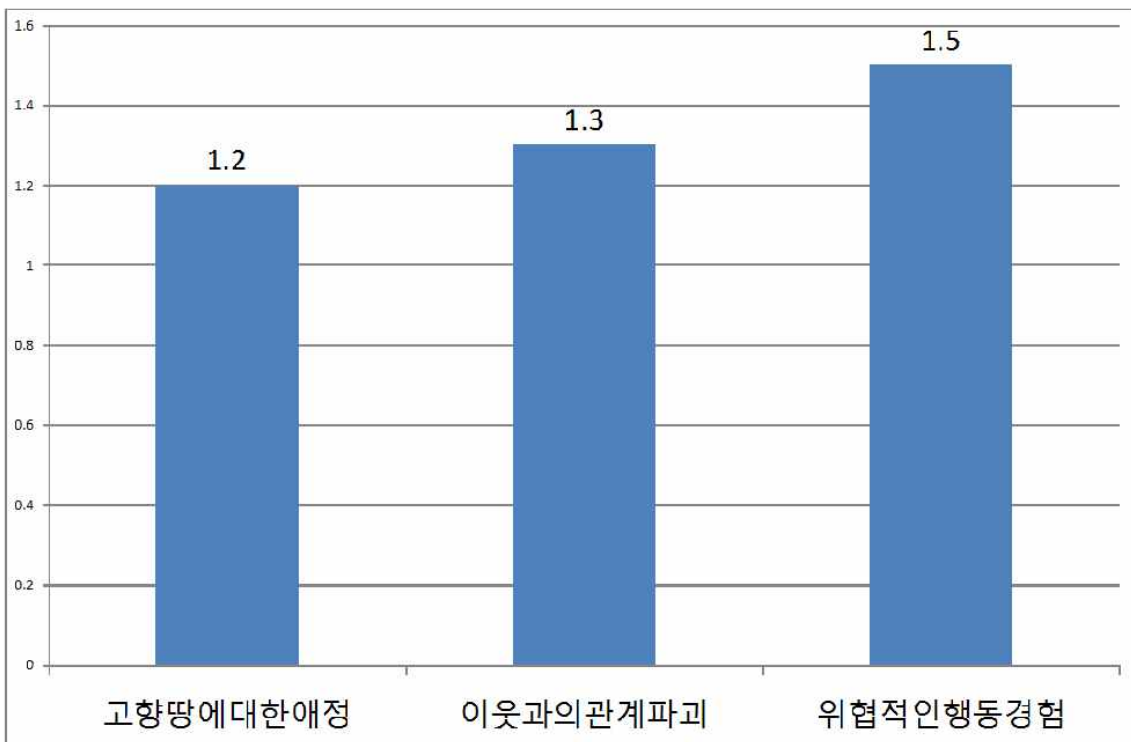


그림 7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관련 있는 인식 및 경험의 관련성의 강도

바. 신체적 건강 피해

조사 대상자 중 30.4%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고, 관절염이나 근육통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도 각각 22.8%, 20.3%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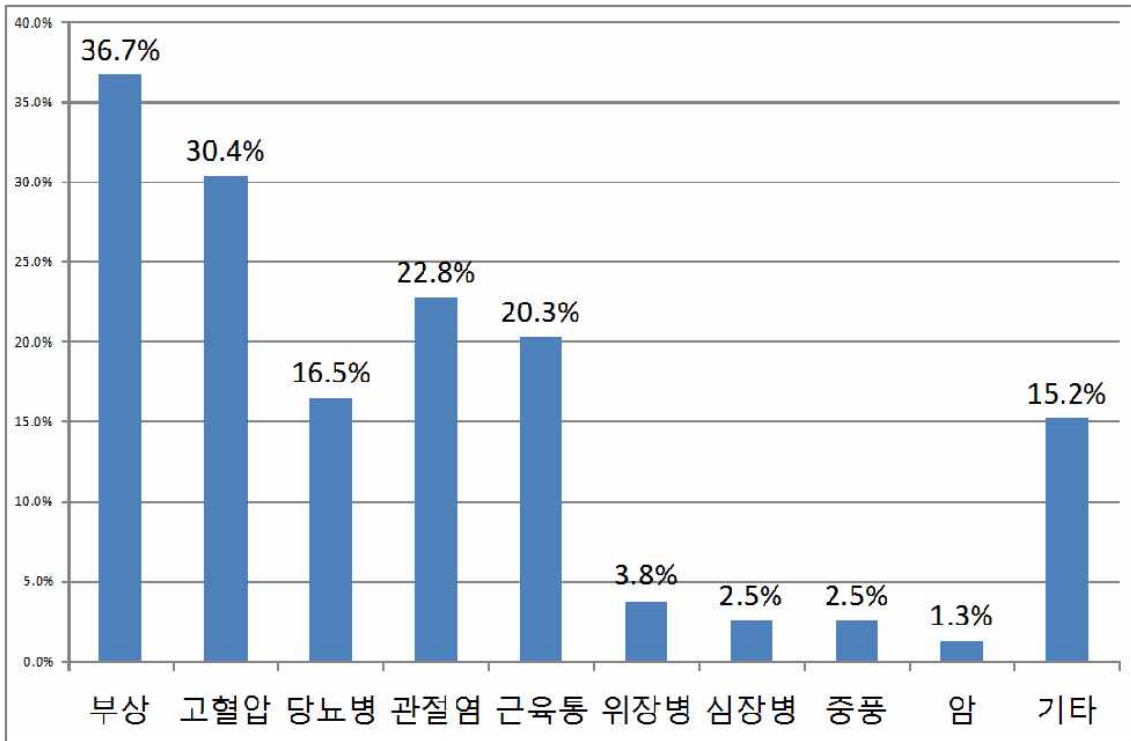


그림 8 현재 상병 및 송전탑 건설 갈등 중 부상 경험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70세에 달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근골격계 질환을 지병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장기간 이어진 갈등 상황은 신체적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혈압, 당뇨병 등 노인성 만성질환은 심한 스트레스, 정서적 충격 및 흥분 등이 질병의 경과에 악영향을 끼쳐 최악의 경우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 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송전탑 건설 시공사 직원들과의 항상적인 대치 상황과 그로인한 스트레스 및 정서적 충격, 흥분 등은 주민들의 신체 건강 상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송전탑 건설 저지 과정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인근 산을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는 노인들의 무릎, 허리 등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퇴행성 관절염 등의 근골격계 질환을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송전탑 건설 저지를 위한 활동 중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경험을 확인해 보았을 때, 조사대상자의 36.7%가 부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건설 저지 과정에서 몸싸움, 대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체적인 신체적 피해라고 할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조사 대상자 중 매우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는 이들은 35.4%에 달하였다. 이는 일반 인구에 비해 4-5배, 전쟁 및 내전을 겪은 이들에 비해서도 더 높은 수치이다. 9.11 사태를 겪은 미국 시민들에 비해 2.4배, 걸프전에 참전한 미군에 맞먹는 증상 유병률이다. 이는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겪고 있는 갈등이 사고, 전쟁, 해고 등의 심리적 외상과 비슷한 정신심리적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충격의 강도가 매우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향 및 살던 땅을 잃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마을 공동체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 한전 직원, 시공사, 용역 등에게 당한 위협적이거나 무례한 행동 등이 가장 중요한 정신심리적 외상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울증 고위험군은 17.7%, 불안장애 고위험군은 30.4%, 공포 장애 고위험군은 29.1%였다. 이는 한국의 평균적 노인 인구에 비해 1.4~1.5배 정도 더 높은 우울 증상 유병률이다. 조사 대상자들 중 우울감이 심한 이들보다는 불안, 공포 등의 감정 상태 이상을 나타내는 이들이 더 많았다. 주민들은 현재 송전탑 건설 저지 투쟁 과정 중에 있기에 강한 신념체계로 자기 무장하여 닥쳐올 수도 있는 부정적 상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현실적 상황이 본인의 기대 및 자기 확신과 어긋날 경우 급격히 파국적인 감정 상태로 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문항에 ‘꽤 심하다’ 혹은 ‘아주 심하다’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31.7%에 달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송전탑 건설 시공사 직원들과의 항상적인 대치 상황과 그로인한 스트레스 및 정서적 충격, 흥분 등은 주민들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송전탑 건설 저지 과정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인근 산을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는 노인들의 무릎, 허리 등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퇴행성 관절염 등의 근골격계 질환을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송전탑 건설 저지를 위한 활동 중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경험을 확인해 보았을 때, 조사대상자의 36.7%가 부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건설 저지 과정에서 몸싸움, 대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체적인 신체적 피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밀양 송전탑 건설 대상 지역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에 따른 갈등으로 인한 정신심리적 스트레스 및 외상과 신체적 부담으로 인해 정신심리적 피해 및 신체적 피해가 발생

하였고, 그러한 피해는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즉 주민들과의 합의 없이 진행되는 공사 재개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의 정신심리적 피해는 더 악화되거나 나아가 비극적인 사건들을 불러올 과국적 상황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와 한전은 주민들의 정신심리적 피해를 불러일으킬 더 이상의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 이 실태 조사에는 아래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조사에 응해 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사 : 강중문, 김승열, 우석균, 이상윤, 이종화, 정형준, 홍상의, 이름 밝히길 원치 않은 의사 2인, 활동가 : 김선주, 이명하)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채민석)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변혜진)
- 새물약사회 및 농민약국(김수진, 박신희, 이슬비)
-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다리(장태호, 전영진, 차수련)